

## 한전李宗勳 사장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1997. 10. 14(화) 07:30 무역센터 무역클럽 51층에서 한국전력공사李宗勳 사장을 초청,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중전기기 업계, 단체장 및 통상산업부 韓永壽 생활공업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중전기기 업계를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중전기기 생산자와 대 수요처간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전기기 제조업체에서는 최근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하락, 설비투자 부진등의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한전 의존도가 높은 중전기기 업계는 한전 발주 물량 감소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전에서는 중전기기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발주 물량 확대 및 구매, 검사제도 개선등 업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9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시행도

건의 했다.

이에 한전 이종훈 사장은 국내 경기 하락에 따른 신규 수요 물량 감소 등으로 전기기 자재의 구매량 감소가 불가피 했다고 전제하고, 전기요금 인상등 자금 수급이 원활해지면 구매 물량도 늘려나갈 계획이며 특히 업계의 계획 생산을 통한 원가절감 도모를 위해 구매 물량을 연간 균등히 발주토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협력 사업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검수시험 간소화 등 각종 구매·검사 관련 제도도 대폭 개선되도록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한전 이종훈 사장은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기공을 계기로 향후 우리나라 중전기기 업계의 대북 진출이 기대되는 만큼 업계에서도 만반의 준비와 경쟁력 향상에 힘써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생산자와 수요자가 한자리에 모여 친선을 도모하고 공존공영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질의 및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의 [일진전기공업(주)/최규복 사장]

- 우리 업계에서는 WTO 체제의 경제질서와 OECD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 및 제품 개발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당장 생산량의 60% 이상을 한전에 의존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하반기 구매물량이 줄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4/4분기 중이라도 물량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함.

● 답변 [한전 이종훈 사장]

- 경기 하락에 따른 신규수요 감소로 전기기자재 수요도 감소하여 구매가 줄었음. 특히 환율이 올라가면서 연료(석탄, LNG, 유류등)값 상승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기요금 인상에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3년만에 5.9% 인상되는데 그쳐 자금사정이 원활치 못함. 통상산업부에서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을 인상해 주면 자금 수급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구매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임.

■ 질의 [중원전기공업(주)/조남진 사장]

- 한전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93년부터 『중소기업 기술지

원 사업』을 시행,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

- 그러나, '98년부터 이 사업이 종료 예정이라고 알고 있어 이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시행과 지원절차 등의 간소화를 요청함.

● 답변 [한전 이종훈 사장]

- 지난 5년 동안 중소기업 협력 연구개발 사업에 약 270억원, 전기공급 설비보장에 667억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최근 전기기자재의 품질향상과 무정전 공법등 전기설비 고장 사례가 급격히 줄고 있어 설비보장에 대한 지원은 없어도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협력연구개발사업은 연간 50억원 정도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임.

■ 질의 [국제전기(주)/김준철 사장]

- 주상변압기 업체의 숙원사항인 납기를 30일에서 40일로 연장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고 구매예시제 시행으로 1개월전에 미리 구매물량을 알려주는 등 업계의 경쟁력 향상과 사업다각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 그러나, 최근 발주물량 감소로 변압기 업체가 조업중단 상태에 있는 등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4/4분기 발주물량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함.

○ 주상변압기 업체의 경우 신규사업 진출이 쉬워 난립 상태에 있는 바, 한전에서 품질균일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수 없는지를 질의함.

㉠ 답변 [한전 이종훈 사장]

- 규제철폐,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 변압기 업체가 새로 늘어나고 한전 참여 업체로 등록하는 것을 한전에서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신규업체의 저항도 예상됨.
- 신규설립 자체의 문제보다는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이 문제될 것이므로 진흥회, 조합 등에서 건전한 경쟁을 조성하고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 보충답변 [통산부 전기공업과장]

- 업체 난립 및 과당경쟁 문제는 단체수의 계약제도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및 한전에서 규제하기 보다는 조합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질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용희 이사장]

- 그동안 중소기업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감사드리며 근래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음.
- 북한의 원자력 발전 건설과 관련 우리가 준공전에는 송전선로등을 연결해 전력을

먼저 공급하는 체제를 갖추고, 준공후 북한의 전력량이 소비되고 남을 경우 남한에서 오히려 구매하여 북한의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구상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우리 중전업계에서는 어느정도 대비책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한전 이종훈 사장님께서 중전기 분야의 대북 진출 가능성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한전 이종훈 사장]

- 북한은 수년내 전기설비가 바뀌어야 하므로 송·배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1990년 이후 저성장 되면서 발전설비도 노후되어 상당기간 전력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회생 여하에 따라 2년내 전기설비 설치도 가능할 전망이어서 전기기자재의 진출 가능여지는 많다고 봄.
- 특히, 북한의 사용 주파수가 60Hz이나 중국, 러시아는 50Hz를 쓰고 있어 60Hz를 사용하고 있는 남한에의 전력공급 가능성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임.

■ 질의 [이천전기(주)/유희동 사장]

- 우리가 수출시 미국·일본·구미 등지에서는 규격이나 언어 등을 통해 무역장벽을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KS 규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업체에는 적

용이 분명치 않아 불합리한 면이 있음.

- 우리 정부에서도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통해 국내업체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건의함.

#### ㉠ 답변 [통산부 생활공업국장]

- 법제도하에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기술장벽은 가능할 것으로 보며, 국립기술품질원등 발주 관련기관과 협의후 시행토록 노력할 것임.

#### ㉡ 보충답변 [한전 이종훈 사장]

- 구매방법 자체는 국제화 되어야 하지만 구매사양은 국내 업체에 유리하도록 시행해 나갈 것임.
- 그러나, 구매사양도 점차 국제 규격에 맞추어 나갈 때 우리 업계의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임.

#### ■ 보충질의 [진흥회/이희중 회장]

- 통신기기등 일부제품의 경우 개방시기가 빠른 것으로 보아 한전이나 중전기기의 경우도 2~3년 후면 방패의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는데 완전 개방 시기는 언제가 될지 답변 요망

#### ㉠ 답변 [통산부 생활공업국장]

- 정부조달 협정하에서 모든 산업분야가 완전 개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나, 쌍무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기 개방은

언제든 가능할 것으로 봄.

#### ■ 질의 [신아전기공업(주)/조준영 사장]

- 한전에서 그동안 물품납품 과정에서의 제도를 많이 개선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우리 업계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한전에서 수시 활용하는 납품자재에 대해서는 최소한 3개월전 발주해 주어 업계의 계획 생산과 재고 부담을 덜어 주시고
- 제품 검수시험시 국제품질인증(ISO 9001) 획득 업체의 경우 주기적인 품질관리 실태 감사로 품질면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검수시험 면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또한, 발주량이 없어 위기감에 처한 업체를 위해 특례 발주제도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람.

#### ㉠ 답변 [한전 이종훈 사장]

- 업계의 부담 감소와 일정 물량 생산에 따른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연중 골고루 계획된 발주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1년내 균일한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실무진에 지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음.
- 검수시험의 경우 민수용은 구매자가 제품 불량시 손해를 감수하면 되지만 한전에서 기자재 설치시 사고가 나면 한전 손해는 물론 제3자인 수용가에도 피해가 발생하

므로 검수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음.

- 품질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검수시험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업계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함.
- 그러나, 검수시험의 간소화 및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업계 손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구매는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저장품을 미리 구매하는 것은 불가함. 따라서, 특례구매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질의 [(주)동남물산/이병균 사장]

- 하반기 한전의 발주물량이 전년대비 1/5 수준이고 10월 한달 동안은 1/10에 불과해 중전업계의 부도가 예상됨.
- '97년 4/4분기 구매계획과 '98년 전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① 답변 [한전 송병권 배전처장]

- 신규 수요 증가 둔화와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배전설비 투자를 줄이고 있음. 정책사업과 220V 승압 사업에서도 연간 600억원을 삭감하는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기대가 불투명함.

■ 질의 [현대중공업(주)/유재환 사장]

- 향후 중전업계의 시장개방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한전의 안정적 투자에도 문제가

될 것임.

- 일본 전력회사의 경우 5년전부터 시장이 개방되었어도 국내업체 진출은 아주 미미한 수준임.
- 따라서, 우리 정부 및 한전에서도 국내업체 보호를 위한 개방대책 강구가 필요함.

① 답변 [통산부 전기공업과장]

-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는 시장을 개방해 놓았으나 전력회사는 시험 요구등 우리업체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우리도 최근 민수용의 경우 수입 중전기기는 국내 시험기관의 인증을 획득해야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며, 한전에서도 이같은 시험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① 보충답변 [한전 이종훈 사장]

- 국영기업인 한전은 물품구매시 정부구매절차 (회계규정)를 따르는 것이 현실로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많음.
- 한전에서는 복잡한 기자재의 경우 건설까지 묶어서 발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외국업체 참여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음.

① 보충답변 [진흥회 이희중 회장]

- 우리 업계의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하

다는 점을 인식하여 품질과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고 반성과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한전 중소기업 기술지원팀서 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애로나 업계에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한전 중소기업기술지원팀 이광섭 팀장]

-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이 5년간 지속되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향후 절차 간소화 및 지원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접수해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충답변 [통산부 생활공업국장]

- 한전의 기술지원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한전에서는 일본, 동남아 등의 전력회사와 유대를 강화해서 중전기기업계를 소개하고 우리 업계의 기술수준과 신뢰도를 홍보하는 등 기술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마케팅 지원에도 힘써 줄 것을 요망함.
-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 문제를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제품의 사양, 규격등을 통한 기술장벽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